陽村先生 "서천견록(書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내가 생각건대, 이십팔수(二十八宿)는 하늘에서 좌선(左旋)하여, 동방칠수(東方七宿)가 남쪽으로 나아가면 북방칠수(北方七宿)는 동쪽으로 이를 잇는다. 북방칠수가 다시 남쪽에 이르면 서방칠수가 동쪽에 미친다. 서방칠수가 다시 남쪽에 있으면 남방칠수가 동쪽에 오게 된다. 이상은 동짓날에 묘수(昴宿)가 남중(南中)할 때이다. 이듬해 봄이 된 뒤 남방칠수가 남쪽으로 되돌아오면 나머지 사방의 각 칠수는 자기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곧 동방칠수는 동쪽 하늘에, 북방칠수는 북쪽 하늘에, 서방칠수는 서쪽 하늘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별이 비록좌선(左旋)하지만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그 차례가 우전(右轉)하여 북쪽이 된다. 그 순환하는 차례로 말한다면, 동쪽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북쪽이며,그 다음 서쪽, 남쪽이 되기 때문이다.

별이 하루에 한 번 하늘을 선회[周天]하면서 일도(一度) 지나는 것을 일러 천도(天道)라 한다. 태양도 또한 하루에 한 번씩 주천(周天)하면서 천체의 운행에 일도(一度)씩 못 미치게 되는데, 이것이 일도(日道)이다. 그러므로 태양은 매일 일도(一度)에 돌아오지만 하늘은 매번 일도(一度)씩 지나치므로, 1년 365일 남짓 쌓인 연후에야 하늘은 처음 일어났던 위치로 복귀하여 태양과 만난다.

가령 하늘과 태양이 모두 각수(角宿) 끝 1도에서 운행을 시작했다면, 하늘은 오늘 한 바퀴 주천하면서 1도를 지나쳐 다음 2도에 이르며, 다음날 또한 일주하여 3도에 이르게 된다. 태양은 오늘 일주하면서 다시 각수(角宿) 끝에 되돌아오며, 다음날 또한 각수 끝에 다시 되돌아온다.

1년을 지낸 뒤에야 하늘과 태양이 각수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비록 각수 끝에서 만났지만, 천도(天道)는 펴졌기 때문에 약간 지나치게 되고, 일도(日道)는 수축되었기 매문에 약간 못 미치게 된다. 70여 년 뒤에 태양은 점차 물러나 왼쪽으로 항수(亢宿)의 초도(初度)에 들어가며, 천도(天道)는 점차 나아가 오른쪽 각수(角宿) 2도에 이르니, 이것이 이른바 세차(歲差)로 1도 물러난다는 것이다.

그런즉 요 임금 때의 중성(中星)이었던 묘수(昴宿)는 채침의 '집전' 시기에는 마땅히 오미(午未)를 지나쳐 신유(辛酉)로 나아갔을 터이니, 이에 삼수(參宿)와 정수(井宿)가 오방(午方)으로 진행하여 새로운 중성(中星)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그렇지 않다. 묘수(昴宿)는 도리어 오방(午方)에 미치지 못하였고, 북방의 벽주(壁宿)가 중성(中星)이 되어 있다. 이것은 천도(天道)가 도리어 물러나 왼쪽으로 가고, 태양의 운행이 도리어 나아가 오른쪽으로 간 것과 같다. 아마도 『집전』과 다른 것은 천도(天道)는 늘 펴지므로 도리어 느리고, 태양의 운행은 안으로 줄어들므로 도리어 빠르기 때문이다. 마치 두 사람이 삥 둘러 돌면서 달리는데, 한 사람은 빠르고 한 사람은 느린 경우, 빠른 사람은 항상 처음 길을 따라 가지만, 느린 사람은 매번 미치지 못하여 안으로 그 길을 줄이면서 달리는 것과 같다. 빠른 사람이 도리어 뒤쳐지고 느린 사람이 반드시 앞장을 서게 되니, 이는 빠른 사람은 바깥을 돌아 그 길이 항상 멀고, 느린 사람은 안으로 축소하여 그 길이 짧은 까닭이다.

태양의 운행은 매번 바깥으로 물러났다가 반드시 안으로 진행한다. 요 임금 때 태양은 허수(虛宿)에 있었고 중성(中星)은 묘수(昴宿)이었다. 이는 하늘과 태양이 현효(玄枵)의 허수(虛宿)에서 만난 것이다. 그런데 태양의 운행이 차츰 물러나 안으로 축소됨에 따라, 『집전』 때에 태양이 두수(斗宿)에 위치하고 벽수(壁宿)가 중정(中星)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요전>의 중성과 『월령(月令)』의 증성이 서로 다르고, 『월령』의 증성과 『집전』의 중성이 또한 서로 달라진 것은 해그림자의 장단(長短)이 또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월령』 때의 구각(晷刻 : 해그림자 길이)은 요 임금때에 비해 반드시 좀 짧고, 『집전』 때의 구각은 '월령'에 비해 또한 감소되었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靖簡公이 編纂한 '薰陶坊鑄字洞志'

정간공 편찬 훈도방주자동지

권 정 택 (기로회장)

〈지난호에 이어〉

1403년 2월에 신설된 주자소는 서울이 아니고 개성이었다. 조선 정부의 서울 전도(奠都)는 1395년(태조4년) 10월이었으나 4년 후인 1399년(정종 원년) 3월에는 다시 개성으로 환도했고 그 후 다시 서울로 귀환한 것은 1405년(태종5년) 10월이었다. 따라서 주자소가 새로 설치되고 계미자(癸未字)가 주조된 것은 개성에 수도가 있을 때 일이다. 서울 환도 시에 주자소도 서울에 이설되었으리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주자소는 이때 왕궁인 경복궁에 두지 않고 서울시내의 타처에 두었다가 1435년(세종17년) 9월에 주자소를 경복궁에 이치(移置)하였다는 실록의 기사로써 분명한데 어디서 옮겨 왔는지를 실록은 전하지 않고 있다.

주자소를 경복궁 내로 위치한 것은 한 달 후인 10월19일 실록기사에 의하면 '주자소는 승정원이 주장하는데 그것이 궐외에 있어 사무연락이 지연되기 때문에 궐내로 옮기라'는 세종 자신의 발안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주자소는 궐내 아문(衙門)으로서 승정원 직속기관임을 역시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무 간편상 주자소가 궐내에 이치 된 뒤로는 주자소 구 건물은 교서관 소속하에 판목고로 사용하도록 결정되고 있다.

그런데 주자소의 구 위치에 관하여 궁궐지에 의하면 교서관은 본래 경복궁 사옹원(司饔院) 남쪽에 있던 것으로 현재는 중부 정선방(貞善坊)에 있는데 이것을 내관이라 부르고 남부 훈도방(薰陶坊)에 있던 것이 앞에 말한 1435년(세종17) 왕명에 의하여 새로 교서관이 이관 받은 주자소 건물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것은 경성부사가 소거(所據)한 훈도방 주자동지에 의하면 바로 주자 동에 교서관 외관이 있었다고 한다.

교서관 그 자체와 주자동이라는 이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니 이 주자동이란 이름은 필시 원래 그 자리에 주자소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동명인 것으로 보인다. 즉 주자소가 있기 때문에 주자동이란 이름이 생겼는데 1435년에 주자소가 궐내에 이치 되고 주자소 건물은 교서관 외관으로서 판목장치소가 된 후에도 그 동명은 그대로 남아 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 동명 개정은 1914년이었으며 따라서 주자동이라는 이름은 그때까지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 되었건 간에 활판인쇄 사무는 교서관의 주장사무로 된 뒤에도 그것을 위한 전문 관청이 교서관 안에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교서관조에 정조18년의 주자소 복설에 관하여 '모든 활판인쇄는 여기서 하여 왔는데 그 이름을 새로이 만들지 않고 그저 임시로 감인소(監印所)라고 불러왔는데 이제 국초의 구호를 따라 주자소라고 부른다.' 고 기록돼 있다.

여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주자소는 순조, 헌종을 거쳐 1857년(철종8년) 10월15일 밤에 일어난 대화로 소멸되고 말았다. 이때에 타 없어진 활자를 보충하기 위하여 이듬해인 1858년(철종9년) 정월21일부터 시작해 그 해 9월18일까지 사이에 활자의 대량 주조가 있었다.

활자의 재주(再鑄)와 함께 주자소도 물론 재건되었고 주자 필후(畢後)의 규장각 계언(啓言)에 분부입장간주자소(分部入藏干鑄字所)라고 있다.

화재 후의 주자소장 활자 수는 정원용의 수향편(袖香編)에 의하면 정리자(整理字), 한구자(韓構字)는 화재를 면한 것이 각종 177,531자, 신주한 것이 160,693자, 도합 338,225자로 되어 있는데 1910년(융희3년) 3월의 규장각 '주자실록'에는 따로 위부인자(衛夫人字) 대소 203,921자가 있다.

주자소 설치 후 최초로 주조된 것은 계미자

주자소가 설치된 뒤 최초로 주조된 것은 1403년(태종3년)의 계미자(癸未字)로 이것은 개성에서 주조된 것이며, 계미자 인쇄로 말하면 서울환도가 1405년(태종5년) 10월이니 그때부터 세종의 경자자(庚子字) 주조가 실시된 1420년(세종2년)까지 약 16년 동안 서울에서 실시되었다. 이 사이에 많은 서적이 인쇄되었겠지만 1412년(태종12년) 간행의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는 서울에서 인쇄된 동활자 인쇄본으로 현존하는 최고본이 될 것이다.

계미자 다음에는 경자자가 주조되었다. 경자자 주조가 계획된 것은 1420년(세종2년) 경자년 11월인데 이것은 동판과 활자 치수의 불합리에서 오는 인쇄상의 결점과 자체가 구양순체(歐陽詢體)의 우쭉우쭉한 것임을 개량하기 위해 세종 자신의 발안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1421년(세종3년) 3월24일 실록기사에 계미자의 인쇄상 불편을 지적한 다음 '여기서 왕이 친히 연구하여 공조참판 이장(李藏), 전소 윤남급(尹南汲)에게 활자와 동판이 서로 맞아 틈이 안 생기도록 개주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즉 납을 녹여 부어도 글자가 움직이지 않고 매우 해정(楷正)하여 하루에 수십 백지를 인출하게 되었고 그 공로를 생각하사 여러 번 주육을 내리셨다' 고 기록돼 있다.

경자자의 자체는 틀림없는 원판본(元板本)의 자체이다. 크기도 계미자가 대략 1.4리평방인데 대해서 경자자는 1리평방 정도이며, 훨씬 작고 또 행서체이기 때문에 변계량(卞季良)이 '자양위극정치(字樣爲極精緻)' 라고 할 만하다. 경자자로 인쇄한 서적으로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는 약 15종이 된다. 그 중 제일 오래된 것이 자치통감망목(資治通鑑綱目)이며 이것은 경자자가 되던 1421년(세종3년)에 세종이 인쇄를 명하여 이듬해인 1422년(세종4년)에 완성된 것이며, 세종은 집현전을 시켜 교정을 보게 했다.

이 경자자는 1434년(세종16년) 7월2일에 시작된 갑인자(甲寅字) 주조로 인해 그해 6월에 노걸대(老乞大), 박통 사등서(朴通事等書)를 인쇄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용이 중지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계미자는 1일 인수지(印數紙)였고 경자자는 20여지(餘地), 갑인자는 2배가 되는 기술의 발달을 보이고 있다.

갑인자 대자(大字)의 크기는 약 1.4리평방으로 경자자보다 커지고 계미자하고 같게 되어 있다. 갑인자는 계미·경자자 등 신활자가 생기면서 사용이 중지된데 반하여 선조 때에 개주 갑인자가 주조될 때까지 장구한 시일에 걸쳐 종래의 을해자·갑인자 등 신활자와 함께 병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갑인자 간본의 수는 막대한 것이며 현재 남아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수이며 화산서림의 고동활자책표본서목(古銅活字冊標本書目)만도 53종의 서명을 들고 있다.

갑인자의 뒤를 이어 1436년(세종18년) 병진 7월29일에 소위 병진자라는 극대 활자가 주조되었는데 문헌비고에는 이 병진자를 범연위자(範鉛爲字)라고 되어 있어 이것이 납 활자로 알려지고 있다.

병진자 다음에는 경오자(庚午字)가 주조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을해자(乙亥字)가 주조되었는데 을해자는 대중소 3종이 있었다. 을해자 다음에는 을유자(乙酉字)가 주조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갑진자(甲辰字), 계축자(癸丑字), 병자자(丙子字)가 주조되는 등 주자소에서는 오랫동안 많은 활자가 주조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31회〉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橃)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충재 선생의 을사·정미사화 연간에 올린 상소와 간쟁, 즉 조정에서의 언행에 대해 지난 호의 평가에 이어 선현들의 기록('언행척록言行摭錄')을 첨가한다면 허봉(許篈, 호는 하곡荷谷, 1551-1588)은 "권공은 정직하여 꾸밈이 없고 충직하므로 육척지고(六尺之孤;어려서 부모를 잃은 아니, 15세 이하의 고아)라고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니 그 말의 뜻을 알겠다."고 하였다.

퇴계 이황(李滉)이 지은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1482-1519)의 행장에 이런 말이 있다. "(정암) 선생이 제거되지만 않았더라면, 당연히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서 흐린 기운을 없애고 맑은 기운을 떨쳐내어 나라 안을 정화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정세를 살펴보고 크게 우로할 만한 것이 있었던 까닭에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부득불 여러 가지 의견을 하나로 조정할 뜻을 가지셨는데, 신공 상(申鍾)과 이공 자(李耔)와 권공 벌(權橃)의 의견이 모두 그러했으니, 그 시기에 따른 적절한 의논이 중용에 어긋나는 것이 없으셨다."고 하였다.

선조 즉위년(명종 22년;1567년) 10월(7월에 즉위)에 당시 영의정 이준경(李浚慶, 호는 동고東皐, 1499-1572)이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을사년 이후 죄 없이 횡액에 걸려 죄인처럼 몰린 사람들이 있어 지금까지 사대부들 사이 울분이 그치지 않고 공론이 더욱 격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원통함을 씻어주고 답답함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사를 베푸시는 시정에 있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온데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하셔야 할 때입니다.

죄인으로 몰렸던 사람 가운데 생존한 사람과 작고한 사람을 구별하여, 그 인물됨과 실적을 이름 아래 기록하고 또 그 당시 죄명 등을 기록하여 주상전하께서 한 번 보시매 확연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을사록乙巳錄」 라고 하였는데 그 기록에 "권벌은 덕행이 순수하고 충성이 아울러 지극하였는데 멀리 삭주로 유배되었다." 고 운운하였다.

"선조실록"에서도 1권, 즉위년(1567 정묘년) 10월 6일(정해) 3번째 기사에 「영의정 이준경이 신원(伸寃)할 사람들을 서계에 조목조목 쓰다」라는 제목에 "대신들이 의논하여 아뢸 때에 명사들의 이름 아래에 사실을 열거하여 적는 것이 가장 광명정대한 방법인데도 우의정이나 찬성(贊成) 이하가 모두 분별해서 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의정 이준경(李浚慶)이 단연코 혼자서 그렇게 하자 우의정 이명(李蒡, 1496-1572) 역시 따라서 찬성하여 마침내 정론(正論)이 베풀어졌다."고 하였다.

율곡 이이(李珥)는 선조 임금께 올리는 「옥당논차玉堂論箚」에서 "권벌은 종묘사직을 지킨 신하입니다. 그가 계(啓)를 올리며 쓴 말은 밝기가 별이나 해와 같았습니다. 전하께서 시험하시어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사람됨을 아실 것이옵니다. 권벌이 세 분 대신(윤임, 류관, 류인숙)에 대해 구원하고자 한 일이 이와 같이 지극하였는데도, 간흉들이 오히려 공을 훈적(勳籍 ; 공훈이 있는 신하의 업적과 기록으로 공신호, 이름, 벼슬을 기록한 문서)에 기록하였던 것은 소인들이 군자의 이름을 빌어서 인심을 감복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당시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尹任) 등 대윤(大尹) 일파를 몰아내고 명종을 임금에 추대하고 문정왕후를 수렴청정하게 하는 데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린 칭호로 이른바 '위사공신' (추성협익정난위사공신推誠協翼定難衛社功臣)이라 하였다.

즉 윤임과 류관, 류인숙 등이 사약을 받아 죽자 이 일에 대해 논공행상이 이뤄져 전날에 충순당(忠順堂)에 있었던 회의에 참석한 모든 대신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었고, 충재 선생은 위사공신 길원군(吉原君)이란 칭호를 받았다.

참고로 이 때 이언적도 위사공신 종1품 숭록대부 의정부 좌찬성 여성군(驪城君)에, 이황도 종3품 홍문관 전한(典翰)으로 기록에 나온다.

이 기록들은 "명종실록"1권, 즉위년(1545 을사년) 8월 29일(기미) 4번째 기사에는 충재 선생의 이름이 올라 있으나, 9월 16일(병자) 7번째 기사에 나오는 27인의 명단에는 빠져 있다.

그것은 충재 선생이 8월 28일에 원상(院相)의 직책과 원래 맡고 있던 직책을 그만두게 해 달라고 계청을 하였고, 정순붕 등 간당들이 특히 충재 선생을 지목하여 모함하였기 때문이었다.

정순붕 등이 "권벌은 우리들과 논의가 같지 않았사오니 청하옵건대 삭제하소서."라고 하였다. 한 편 그 뒤(선조 10년(1577;정축년) 12월 8일(경인)에 "위사공신은 위훈(僞勳)이라 하여 삭제하고 신원시킨다"는 교서를 중외 반포하였다.

을사사화가 있던 그 해 8월 28일. 그날로 원상을 그만 두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졌고, 10월 9일에는 모든 직책을 파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충재 선생은 고향으로 낙향하였다.

이 때 장안의 인심은 매우 흉흉하고 모두들 두려워하였다. 선생의 사위 홍인수(洪仁壽)가 지방에서 올라와 문안인사를 드렸더니, 선생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서책을 펴 놓고 앉아 독서하다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어떤 이가 와서 위로의 말씀을 드릴 때에야 비로소 파직되었음 알게 되었다 한다.

〈다음호에 계속〉

有懷堂 權以鎭의 對外認識

▣ 김 문 식 (단국대 교수)

〈지난호에 이어서〉

권이진은 먼저 축성에 동원된 사람과 가족을 산성 안으로 이주시키고, 차례로 주민들을 이주시키며. 산성에서 7-8리 떨어진 곳에 있는 감동창을 성안으로 옮겨 금정산성을 중진(重鎭)으로 육성하자고 했다. 권이진은 남해안 경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중국 강남의 해적과 왜노(倭奴)가 결탁하면 호남 지방은 그들 통로가 되는데 남해안 해방(海防)은 매우 허술함을 발견하였다.

그는 전선(戰船) 1척에 딸린 720명의 보인(保人)에서 80명을 선발하여 40명씩 교대로 근무시키고, 나머지 인원은 이들의 월급과 기타 경비를 충당하게 했다. 또 남해안 요해처에 있는 수개의 소진(小鎭)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진(大鎭)으로 만들고 뛰어난 장수를 선발하여 오래 근무하게 하거나, 여러 진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방어거점이 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4. 청에 대한 인식

권이진은 청의 무례함이 조선의 국체에 해가 된다는 점에서 분노하였다.

그는 1727년(영조 3)에 청에서 보내온 자물(咨文)에 조선 국왕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나타나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당시 조선상인 200여 명이 심양과 책문에서 청 상인에게 빚을 진 것이 6만 냥에 이르자, 청에서 자문을 보내 갚으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상인의 숫자가 너무 많고 이름도 틀리는 경우가 많아 변제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자, 청에서는 빚을 탕감한다고 통고하면서 경종을 비난하는 문구가 나타났다. 권이진은 조선과 청의 관계는 대등하므로 이러한 치욕을 감내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자를 체포하여 청으로 보내고, 군문이나 관서지역에 비축한 재용이나 관리의 월급을 거둬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였다. 조선과 청의 교섭에서 선결 과제는 국체에 관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권이진은 1724년(경종 4)에 북경을 다녀오면서 청의 실상을 파악했다. 그는 청이 건국된 직후에는 관대한 정치를 펴서 지탱해 왔지만, 강희 말년 이래로 기강이 해이해지고 한인과 청인의 사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았다. 권이진은 청이 혼란에 빠지고 조선을 다시 침입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북방 경비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당시 압록강이나 두만강 연안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호인(胡人)과 왕래하며 불법적인 교역을 하고, 조선의 범법자가 저들에게 망명하여 심복이 되는 일이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권이진은 조선의 범법자를 회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권이진은 북방 경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그는 기존의 유명무실한 소진(小鎭)을 합하여 대진(大鎭)을 만듦으로써 중요한 방어 거점이 되고, 나머지 진졸(鎭卒)에게는 봉화의 임무만 맡겨 적의 기습 공격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또한 적의 손에 넘어가기 쉬운 강변의 무기나 군량, 창고를 요새지로 옮겨 유사시를 대비하도록 했다. 권이진의 방안은 대대적인 국방 강화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인원과 시설을 재배치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였다. 권이진의 방안은 후원자였던 남구만이나 최석정의 방안과 연결된다. 특히 남구만은 조선의 국력이 태조의 선조들이 살았던 두만강 이북이나 기자와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동을 회복할 정도는 못되지만, 압록강과 두만강의 이남지역은 우리 영토로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남구만은 압록강과 두만강북쪽에 호인(胡人)의 자취가 없는 틈을 타서 그 남쪽의 영토를 완전히 회복하고 이곳에 이주민이 살게 해야 청의 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된다고 보았다. 남구만의 제자였던 최석정은 군역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각 군문의 숫자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진관제(鎭管制)를 활용하자고 했다. 이는 큰 읍의 수령이 지휘관이 되고 그 예하의 소읍에는 속장(屬將)을 두되, 평소에는 각자 독자적으로 훈련하고 유사시에만 주진(主鎭)의 예하로 들어가게 하는 방안이었다. 이는 경비절감의 효과까지 있었다. 권이진은 청과 대치하던 압록강 연안에 있던 방어시설을 수리하고 읍치를 방어하기 편리한 곳으로 이전하자고 했다. 이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조선의 국경으로 하고, 폐사군의 복설을 주장하며, 이것이 청의 침입에 대한 대비책이라 역설했던 남구만의 방안과 흡사하다. 또한 권이진은 다수의 유명무실한 소진을 없애고 이를 소수의 대진으로 재편성하여 방어거점이 되도록 했다. 이는 전국의 방위를 방어거점 위주의 진관제(鎭管制)로 편성하고 현실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갖추려 했던 최석정의 방안과 유사하다. 권이진의 실무적 방안은 당시 정국에서 실리(實利)에 장점을 가졌던 소론계 관료들의 방안과 유사하다. 권이진은 조선의 국체를 분명히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한 상황에서 청이나 일본과의 교섭에 임하려 했다. 이는 그의 실무관료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는 동시에 존주의리론을 표방했던 조선 학자들의 현실 대응 방안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끝〉